

# 일본(日本)의 한국형(韓國形) 모내기노래

李 素 羅

(문화재전문위원)

- |                      |            |
|----------------------|------------|
| 1. 序                 | 4. 結       |
| 2. 이나기와形과 상사形 모심는 소리 | 5. 악보와 가사  |
| 3. 親子唄와 慶尙道 모노래      | 6. 日本語 要約) |

## 1. 서(序)

한국의 농요를 연구해 오면서 백제문화권과 가야 내지 신라문화권의 모심는소리 민요권이 확연히 다름을 보았다. 특히 후자의 모노래는 받음구가 없이 대구(對句) 관계의 가사를 두패가 교창(交唱)하며 아침, 점심, 저녁노래라는 시간별 구분을 하는 것으로 개성이 뚜렷하고 전파범위가 넓어 가야, 신라인들이 적지않게 건너가 살았다는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보름간의 제1차 일본방문을 한 것이 1991년. 동경(東京)의 일본민요협회 자료에서 무(無)후렴 시간별 전식가(田植歌)를 발견하고 오사카 거주 농부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사카의 민요학자 미기다씨(氏)(右田伊佐雄)가 수집해 놓은 이상한 후렴구를 보고 그가 예측하는 대로 한국관련의 전식가(田植歌)라면 그것은 한국의 모심는 소리중에서 상사류에 속한다고 판단되었다. 1993년 제2차 조사지로 현재까지 전식가(田植歌)가 남아있다는 쥬우고꾸(중국(中國))지방의 히로시마와 시마네현을 택했고 그 이듬해 2월 제3차 조사에선 그밖의 지방들을 답사했다. 마침 1994년 6월에 일본방송출판협회에서 「일본민요대관(日本民謠大觀)」 전(全)9권을 CD와 함께 복간하였기로 이를 모두 구하여 볼수 있었다.

「일본민요대관(日本民謠大觀)」은 일본방송 NHK가 주체가 되어 1941년부터 작업한 것으로, 1944년에 최초로 관동(關東)편을 출간하였고 1980년에 아홉번째인 구주(九州)편을 발간하였다.

한국의 농요에 관하여 전국적인 읍면별 녹음은 1984년에서 1989년에 걸쳐 필자에 의해 집중실시 되었고 처음으로 일차 완료되어 농요별 민요권 설정을 비로소 가능하게 했다.

人力으로 논감을 매는 대신 일반적으로 제초제(除草劑)를 뿌리게 된 것은 1942년 Zimmerman이 연구한 선택성 제초제 2, 4-D가 등장한 이후이며 한국의 농촌에도 해방 뒤부터 제초제가 봄을 일으키기 시작했다.<sup>1)</sup>

제초제의 사용에 따라 두레로 논맬 필요성이 없어지자 두레작업노래인 논맬소리도 들

판에서 사라졌다. 필자의 답사에서 나타난 한국농촌의 두레는 모심을 때보다 논매기 때에 집중되고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벌땀 무렵부터 두레가 섰던 것으로 보아 논매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은 모심는 소리의 소멸에도 적지않게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5, 6명 이상이 모인 노인정에 들르면 으레히, 술도 없이 어떻게 노래를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농민 문화의 보호층이었던 천석꾼, 만석꾼들이 노·일전쟁을 전후해서부터 몰락해 갔던 점<sup>2)</sup> 그 소리를 침체케 했고 6·25사변, 이농(離農)현상, 기계이양 등은 모낼 때의 소리를 지역에 따라 대체로 1950년~1970년 사이, 논에서 사라지게 했다.

일본 도근현(島根縣) 대전시(大田市)의 민요수집자인 가즈베氏(勝部義夫)는 1938년까지 오오다시(市)의 논에서 모심으면서 노래했던 것으로 조사된다고 한다. 도근현(島根縣) 나하군(那賀郡) 금성정(金城町) 소국(小國)의 선소리꾼(サゲ)인 다나끼씨(氏)(전중택 차낭(田中宅次浪) ; 1904년생(年生). 男. 토민(土民))는 1932, 33년까지 5~20인이 모내면서 악기(태고(太鼓))없이 노래했다고 하며, 금성정(金城町) 구좌(久佐)의 선소리꾼인 가지와라씨(氏)(: 1921년생. 남. 토민(土民))는 1938년경 우공양전식(牛供養田植)(모심기에 앞서 모 심을 물논에 천으로 치레를 한 30마리 정도의 소들이 들어가 밟았음)때에 태고(太鼓)를 치면서 불리본 이후론 들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도근현(島根縣) 능의군(能義郡) 백태정(伯太町) 안전(安田)의 선소리꾼 미야모또씨(氏)(宮本信夫), 1924년생, 男, 토민(土民))는 12인이 모를 심었는데 악기없이 하며, 1960년까지 노래했다고 한다. 도근현(島根縣) 광뢰정(廣瀨町) 소비전(西比田)조사에서는 큰 논일 경우 15명 정도가 모를 심으며 태고수(太鼓手) 1인과 함께 1955년까지 노래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미루어볼 때 일본에서 가장 늦게까지 모심는 소리가 불리운 지역에 속하는 시마네켄(도근현(島根縣))에서는 마을에 따라 1940년대로부터 1960년 무렵 사이에 들녘에서 사라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나가와(猪名川각) 형(型)과 상사형(型) 모심는소리

일본을 九州.사국.근기.중국.중부.(동해.북육).관동.동북.북해도(九州.土國.近畿.中國.中部.(東海.北陸).關東.東北.北海道) 지방으로 나눌 때 북해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심는소리 악보가 있지만 필자의 조사시에 그 지역 민요 연구가나 교육청을 통해 수소문하여 옛 선소리꾼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은 근기(近畿).중국(中國).동해(東海)였다.

「일본민요대관」에 게재된 모내기(묘취괘(苗取唄)와 전식괘(田植唄))노래의 해설과 악보, 테잎 등을 참고해 보면 일본의 모내기노래는 우리의 맥받형식보다 교창형식에 치우친다.<sup>3)</sup> 필자의 조사지에서는 동해(東海)의 석천현 주주군 내포정(石川縣 珠洲郡 内浦

1) 「改訂 農藥學」李成煥.洪鐘旭 共著, 郷文社 1990. p.226 참조

2) 강동진, 「한국농업의 역사」한길사 1984(1982초판) 참조  
신용하, “두레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공동체이론」문학과 지성사 1987(1985초판) 참조

3) 「일본민요대관」에서 맥받형식의 받음구에 해당되는 예 :

- 。九州편(北部) 福岡縣 譜. 19 ; (받)アサイバンサイバン
- 。關東편 神奈川縣 테잎 9의 11 ; (받)エオヤ-レヤ-レヤ
- 。九州편(北部) 長崎縣 譜.243 : (받1)アラヨイヨイヨイ  
(받2)アラヨインヨコラ
- 。關東편 茨城縣 테잎 1의 8 ; (받)ハウエシヤ-レウエテンヤ-レ

町)의 전식패(田植唄)만 맥받형식으로 가창되었으며 그 받음구는 “아 야-레 다이소 야-레 다이소”였다. 메김구의 끝구 반복을 신호로 받음구가 나왔다. (메)에 비해 (받)이 훨씬 짧아(메>받) 우리의 맥받형(型) 모심는소리와는 다르다.<악보 1>.

그러나 이나가와형(型) 전식가(田植歌)는 후렴이 본문선율길이에 상당해 한국의 맥받형 모심는소리와 상통한다<악보 2>. 상술한 오사카의 미기다씨(氏)는 그의 저서 「大阪の民謡」 뒤쪽에 이나가와형(型) 전식가(田植歌)의 후렴구(句)들을 나열하면서 뜻모르는 말들이고 일본민요에서는 드문 3분박 리듬이 나오는 점, 부근에 한국계 신을 모신 신사(神社)가 있는 점으로 보아 한반도로부터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비쳤다.<sup>4)</sup> 이 후렴구(句)들은 끝을 “시니쇼와이도요, 시니쇼와이노, 신쇼바이노, 시니쇼바이쇼, 시나쇼와이라, 시나쇼와이나, 시나쇼와이노, 시나쇼와이노, 시나쇼오이나, 시나쇼마이요”로 맺기 때문에 백계계(系)인 상사류 모심는소리의 받음구와 연관된다.

상사류의 모심는소리엔 곽상사형, 농부가형, 부여형, 천안형, 전남형(진도형, 고흥형, 나주형 등)이 있다.<sup>5)</sup> 이 중에서 충남 홍성군 결성면 방면을 본고장으로 홍성군의 서부지역과 보령군 천북면, 서산군 해미면 및 예산군 삼교읍에서 수집되는 곽상사형이 가장 <악보 2>의 후렴부분과 유관된다.

<악보 3>에서 보면 곽상사의 받음선율은 3분박4박 4마디로서 이나가와형(型)의 후렴 4분의 4박 8마디와 서로 걸맞는다. 즉 전자의 1마디가 후자의 2마디에 해당한다. 전자의 제1,2마디는 각각 오목형(型)선율인데 후자의 마디선율도 오목형이다. 전자 제 4마디의 가사 ‘사양사 디여’는 후자 제7,8마디의 ‘시니쇼 와이도요’와 발음상 유사한 감이 있다. 구성음을 보면 전자는 미라도레미의 기음 미로부터 4도윗음 중지를 하고 후자는 (솔)라도레미의 중대음 라로부터 4도윗음 중지를 한다.

### 3. 친자패(親子唄)와 경상도(慶尙道) 모노래

한반도의 무(無)후렴 모심는 소리에는 경상도의 모노래 이외에 중부 경기도의 열소리계(系)와 강원도의 민아리(경상도 모노래가 북진(北進)하여 강원도 민중의 비탕선율인 강원도 아리랑과 습합되어 창출된 형태로 보이며 발매품소리, 논맴소리로도 쓰임)가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의 시간별(別) 노래의 구분이 있는 주된 예는 경상도 모노래 뿐이다. 경상도 모노래의 전파범위는 인접도의 일부지역에 까지 미치지만 그 본거지는 옛 가야지대와 신라 중심부이다. 이러한 본거지에서만 수집과정에서 시간별(別) 노래의 구분을 듣게되며, 가사의 대구(對句)관계를 분명하게 가창한다.

일본의 경우, 시간별 전식가(田植歌)의 예를 주우고꾸, 근기(近畿) 이외에도 중부(中部)의 석천현(石川縣)과 정망현(靜岡縣), 관동(關東)의 군마현(群馬縣)과 신내천현(神奈川縣), 사국(四國)의 향천현(香川縣) 및 구주(九州)의 룩아도(鹿兒島)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전식(田植)바야시의 중심부는 주우고꾸지방으로 조사되어져 있다.

‘전식(田植)바야시’의 의미에 관하여 우찌다씨(氏)는 그의 역저(力著) 「전식(田植)바야시(げやレ)연구(研究)」(웅산각(雄山閣). 1978. p.13)에서 선소리꾼이 타악기를 올리면서 모꾼들과 교호창(交互唱)으로 전식가(田植歌)를 부르고 그것에 악기의 앙상블이 덧붙

4) 필자의 “日本大阪府高槻市の 田植之歌와 한국 釜山市水營農廳農謠 모심는 소리의 相互關係性” 「民謠論集」 제2호 민속원 1993. p317ff. 참조

5) 필자, 「홍성의 노동요」 홍성문화원 1994.

붙여 떠들썩한 습식은 예부터 벼농사 민족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 그 음악은 풍작기원과 노동능률의 촉진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찌다씨(氏) 전식(田植)바야시의 형태를 사사전(仕事田)과 대전식(大田植)으로 나눈다. 전자는 단순히 일노래로서 능률성이 강조됨에 비해 후자는 전(田)의 신(神) 사상에 의한 풍작기원의 기능이 두드러진 바, 다시 안예계(安藝系)의 화전식(花田植)과 비후계(備後系)의 공양전식(供養田植)으로 대별된다. 안예계(安藝系) <도(圖)1의 나>는 보다 화려하고 좌우에 복면인 전고(田鼓)를 사용하며 구주(九州)의 문화권에 속함에 비해 비후계(備後系) <가>는 속도가 보다 빠르고 상하가 복면인 태고(太鼓)를 사용하며 기내(畿内)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한다. <다>는 야마구찌, 히로시마, 시마네겐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며 태고(太鼓)를 쓰지않고 고행(古型)의 소박한 전가(田歌)지대를 나타낸다. <라>는 서사적(敘事的) 짚은소리(필자의 「한국의 농요 제5집」 악보 1787 참조)가 주된 모심는 소리로 되고 있는 곳이며 <마>는 안예계에 선입후제창형식(선소리꾼의 첫마디를 소리내면 연이어서 일동이 제창함)의 네리우다가 첨가된 형태에 불과하다. <바>는 안예계(安藝系), 비후계(備後系)의 절충형으로 전고(田鼓)를 사용하며 속도가 안예계(安藝系)보다는 빠르고 비후계(備後系)보다는 느리다.

이러한 유형의 모내기노래들은 한국의 가야, 신라지대 모노래와 상통한다. <악보 4>는 <도(圖) 1>의 2.광뢰정(廣瀨町)의 모찌는 소리이다. 이는 상괘(上唄)와 하괘(下唄)의 선율이 서로 같고 가사는 대구(對句)관계에 있다. <圖 1>의 백태(伯太)·전(전)·인다정(仁多町)의 그것도 이와 동류였다. 이를 A형(型)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가야, 신라지대 모노래도 A형(型)에 속한다. 한국의 모노래선율은 모절 때와 모심을 때가 공통된다.

한국(韓國) (上) 농창농창 저비루 끝에 무정하다 울오랏아  
(下) 나도 죽어 저승가서 낭군부터 섬길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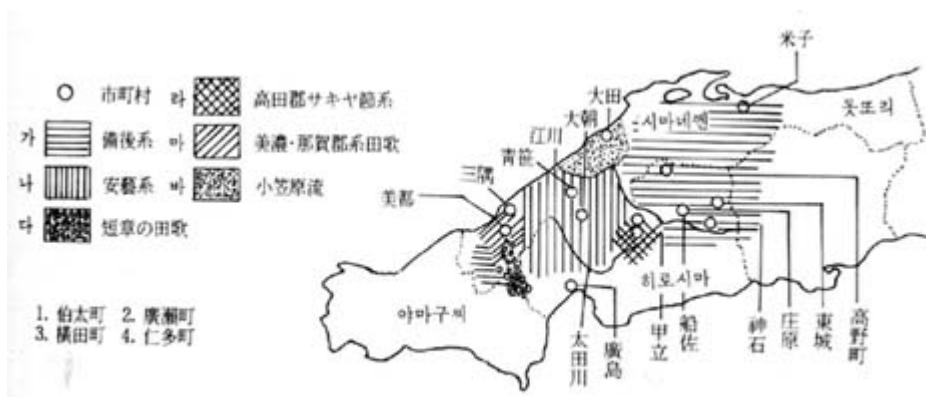
안예계(安藝系)의 표준형은 A+C 즉, 친자괘(親子唄)+오로시(オロシ)이다. 모노래에 이어 “조리자” (「한국의 농요」 악보 1785 및 제5집 p.272이하 참조. 조리자곡(曲)은 경남의 양산·울산·창녕·함안·고성·진양·밀양군과 경북의 영일·경산·경주·칠곡·금릉군 등지에서 수집된다.) 등의 짚은 소리를 부르는 형태에 해당한다. 오로시에는 모꾼들(早乙女)이 매번 가사를 바꾸는 경우와 고정가사를 부르는 예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선소리꾼의 가사가 바뀐다면 맥반형식에 속하게 된다(「한국의 농요 제1집」 경남고성군편 참조). 비후계(備後系)에도 모심기 일과(日課)가 끝날 때 부르는 오로시형(型)이 있는데 이를 나가시(ナガツ)라 일컫는다.

우찌다씨(氏)는 오로시의 표준가사형(型) 7·7·4에서 그 4의 구(句)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노래로 덮어씌우기 때문에 관행이 되어 생략되어 버렸다고 보고 이 생략된 부분을 「歌ツマ」라고 부른다. 한국의 A형 모노래에도 한패의 노래가 채 끝나기전에 다음패의 노래가 소리마중 나가기 때문에 선율의 마지막마디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필자는 이를 「소리마중」 현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상기(上記) 「제5집」 악보 1794, 1795 참조)

안예계(安藝系)이면서 오로시 없이 친자괘(親子唄)로만 구성된 예도 많다.  
(우찌다씨(氏) 상계서(書). p.82 p.113).

<악보 5>는 비후계(備後系) “호르는 형” (류 구조)인 B형(型)에 속한다.

상패(上唄)의 가사를 보면 “(안하-사) 모내는 모습은(안하레)”에서 “모내는 모습은” 앞행 “..세대의 모내는 모습은”의 끝구가 하패(下唄)의 첫구로 되는 까닭에 선소리꾼이 먼저 내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으며, 상하패 선율은 5마디씩으로 친자패(親子唄)와 별차이가 없게 된다.



<圖 1> 쥬우고꾸 田植ばやし分布圖

<圖 1> 쥬우고꾸 田植ばやし分布圖

(상패(上唄)) 오늘의 (안하-레야) 논임자 새댁의 모내는 모습은  
(하패(下唄)) 모내는 모습은 (야-아-레) 5월(五月) 들에 핀 백합꽃

<악보 6>과 같은 상패(上唄)의 가사 2행(行)중 제2행의 가사가 a+b라고 할 때 하패(下唄)의 가사는 “야-레+b/a+b”가 된다. 상패(上唄)의 끝구 b가 하패(下唄)의 고정어 “야-레” 다음에 나오므로써 쓰인 어휘를 반복하여 쓸 뿐이다. 따라서 모꾼들이 노래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이러한 형(型)을 특히 가즈마(かづま)라고 일컫는다.

한국의 모노래에 비추어볼 때 <악보 6>은 본래의 친자패(親子唄)와 다름 없던 것이나 모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가사를 늘여 웬중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한가지 방편으로 가즈마형(型)이 나왔다고도 해석된다. 다음 예(例)의 가사를 가즈마에서는 상패(上唄)로서만 부를 것이나 모노래적(的) 입장에서는 ②는 하패(下唄)가 부르기에 적합하다,

- ①. 오는가 오는가 친(川)아랫쪽을 보며는  
    모래벌에 쭉대 그늘 뿐.
- ②. 오거나 또 아니 오거나  
    내쪽에서 손은 안내밀겠다

이리하여 일본(日本) 전식(田植)바야시의 중심지인 쥬우고꾸 지방의 대표적인 전식가(田植歌)와 묘취 패(苗取り唄)는 A형의 친자패(親子唄), C형의 오로시, B형의 흐르는 형으로써 그중에서 A형이 경상도 모노래의 일반형에, C는 그 잦은 소리에 해당함을 지명 관계상 대충만 언급했다. B형이 많은 비후계(備後系)지대의 모찌는소리는 A형이며, 모를 다 심어 나갈 무렵에 부르는 잦은 모심는소리인 “나가시”가 있는 B형은 그 뿌리를 A형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으로 보아 쥬우고꾸 지방의 전식(田植)바야시는 한국의 경상도 모노래와 상통된다 하겠다.

<악보 4~6>의 구성은 관계를 보면 모두 율(律)음계라는 솔라도레미에 속한다. 레에서 중지하는 <악보 4>를 제외하곤 라에서 중지한다. <악보 5>는 솔 아래로 미음(音)이 약하게나마 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는 경상도 모노래섬법(완전4도 내지 장3도에다 단3도를 얹은 구조)과 연관되는 음이기 때문이다.

우찌다씨(氏)는 진도의 모심는 소리를 일본의 전식(田植)바야시와 비교 연구한바 있다(상계서(書) pp.322ff.). 그는 전자의 긴 받음구를 「하야시 고평바(はやし言葉)」라 부르고 유우꼬꾸 지방의 전식(田植)바야시와의 형식상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모심는 소리 유형으로써는 진도의 모심는 소리는 무(無)후렴의 경상도 모노래와 명백히 형식상의 차이를 가지게 때문에 모노래에서 모꾼들중의 누군가가 「잘한다」라든지 「이후후후」 등의 추임새를 넣는 것과는 엄격히 다른고로 맥반형식인 상사류 중에서 진도형(型)으로 부류되는 바이다.

유우고꾸 지방의 전식(田植)바야시는 경상도 모노래와 비교 연구되어야 제격이다.

#### 4. 결(結)

필자의 현지 방문 수집자료와 CD첨부 「일본민화대관(日本民謠大觀)」 등을 통하여 일본의 묘취 패(苗取り唄)와 전식가(田植歌)를 조감해 보았다.

특히 서소리꾼과 다른 모꾼들이 교대로 부르는 노래중에서 모꾼들 노래가사가 고정적인지 비고정적인지를 살폈다. 짧은 추임새 같은 것이 고정적으로 불리워지는 예가 적지 않으나 맥반형식의 받음구에 해당하기보담 무후렴 교창형식의 추임새(はやし言葉)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의 모내는 노래들은 유우고꾸 지방의 전식가(田植歌)를 일반형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유우고꾸지방의 전식가(田植歌)는 일본학자들에 의해 세밀히 분류되어 있지만 음악형식상 크게는 친자패(親子唄)(A형)(型), 흐르는형(型)(B형)(型) 및 오로시(C형(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상도 모노래는 A형과 상통하는 바가 많으며, 오로시는 모노래 중심지대에서 수집되는 그 잦은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B형(型)은 모꾼들(조을녀(早乙女))이 부르기 쉽게 A형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그런 한에서 그 뿌리를 A형에 두고 있다고 본다면 모노래와도 무관하지 않게 된다.

오사카의 이나가와형(型) 전식가(田植歌)의 긴 받음구는 전라도와 충남의 모심는 소리인 맥반형식의 상사류와 유관하며 특히 홍성군 결성지방을 본고장으로 하는 겹상사의 받음구와

부합하는 점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우고꾸지방의 전식가(田植歌)는 상사류에 속하는 진도의 모심는 소리보담 경상도 모노래와 비교 연구해야 제격임을 언급했다.

伯太町 田植唄 (素. 93-11-18<sup>A</sup>)

- |   |                    |
|---|--------------------|
| ○ 上唄(音頭): <sup>こしれ</sup> 腰の <sup>た</sup> いたさ <sup>なが</sup> この <sup>た</sup> 田の <sup>なが</sup> 長さ                              | 허리의 아픔 어느논의 길이     |
| <sup>しが</sup> 四月 <sup>ごが</sup> 五月 <sup>ひ</sup> の <sup>ひ</sup> 日の <sup>なが</sup> 長さ   | 사월 오월의 해길이         |
| 下唄(早乙女): ヤーレ 日の長さ   | 야-레 해길이            |
| 四月五月の 日の長さ  | 사월 오월의 해길이         |
| ○ (音): <sup>こと</sup> 今年 <sup>しや</sup> は <sup>ほうねん</sup> 豊年 <sup>ほ</sup> 穂 <sup>いな</sup> の <sup>ほ</sup> 田의 <sup>いなほ</sup> 稲穂 | 금년은 풍년 벼이삭의 논외 벼이삭 |
| <sup>かろ</sup> かろ가 <sup>い</sup> いて(し) <sup>よ</sup> よに <sup>ちじ</sup> 穂가 5尺  | 나오자마자 이삭이 5자       |
| (早): ヤーレ 穂가 5尺  | 야-레 벼이삭이 5자        |
| <sup>かろ</sup> かろ가 <sup>い</sup> い(ちじ) <sup>よ</sup> よに <sup>ちじ</sup> 穂가 5尺  | 나오자마자 이삭이 5자       |
| ○ (音): うたえましてぞえ 田植の歌を   | 모심는 노래 부르면         |
| <sup>しこと</sup> 仕事 <sup>こ</sup> らくげに <sup>こ</sup> こ가 <sup>なげ</sup> なげに   | 하는일 즐거움계 딸린게 없듯    |
| ○ (早): ヤーレ こ가 <sup>なげ</sup> 나げに   | 야-레 자식 없는듯         |
| 仕事 <sup>らく</sup> らくげに <sup>こ</sup> こ가 <sup>なげ</sup> 나げに   | 일도 즐거이 딸린게 없는듯     |
| ○ 今年 <sup>は</sup> は <sup>ほうねん</sup> 豊年 <sup>ほ</sup> ほに <sup>ほ</sup> ほ가 <sup>さい</sup> さいて                                    | 금년은 풍년 이삭이 이삭패여    |
| <sup>え</sup> エ <sup>いち</sup> いち의 <sup>こぐさ</sup> こぐさに <sup>こめ</sup> 米가 <sup>なる</sup> なる                                      | 에 첫머리 작은풀에 쌀이난다    |
| ○ (早) ヤーレ 米가 <sup>なる</sup> なる   | 야-레 쌀이난다           |
| <sup>いち</sup> いち의 <sup>こぐさ</sup> こぐさに <sup>こめ</sup> 米가 <sup>なる</sup> なる   | 작은풀에 쌀이난다          |

伯太町 田植唄 (素. 93-11- )

- |   |                   |
|---|-------------------|
| ○ (音): <sup>く</sup> 來ろうか?? <sup>ろう</sup> か <sup>か</sup> と <sup>かわしもみ</sup> 川下見れげ  | 오는가 오는가 내아래쪽을 보며는 |
| <sup>かわ</sup> 川 <sup>ら</sup> 原 <sup>よ</sup> よ <sup>も</sup> も <sup>ぎ</sup> ぎ의 <sup>か</sup> 가 <sup>げ</sup> げ <sup>ば</sup> ばかり | 모래벌에 쭈대그늘뿐        |
| ○ (早) ヤーレ <sup>か</sup> 가 <sup>げ</sup> げ <sup>ば</sup> ばかり  | 야-레 그늘뿐           |
| 川原 <sup>よ</sup> よ <sup>も</sup> も <sup>ぎ</sup> ぎ의 <sup>か</sup> 가 <sup>げ</sup> げ <sup>ば</sup> ばかり                             | 모래벌에 쭈대그늘뿐        |

伯太町 田植唄 계속①

- |   |                                     |
|---|-------------------------------------|
| ○ (音) くだりや それとも くだらぬとても<br>私 <small>ワシ</small> の方 <small>ほ</small> かう 手 <small>テ</small> はたさぬ   | 오거나 또 아니오거나<br>내쪽에서 손은 안내밀겠다.       |
| (早) ヤーレ 手はたさぬ<br>私の方かう 手はたさぬ  | 야-레 손은 안 내밀겠다.<br>내쪽에서 손은 안 내밀겠다.   |
| ○ (音) たとえ 笑 <small>ワう</small> うたところ そまつにするな<br>お米 <small>こめ</small> そたてた 親 たもの  | 설령 웃었다고 푸대접마라.<br>쌀을 기른 그분 아니냐.     |
| (早) ヤーレ 親 <small>よや</small> たもの<br>お米 そたてた 親 たもの  | 야-레 그 분 아니냐.<br>쌀을 기른 그 분 아니냐.      |
| ○ (音) わらを といては わらじを <small>つく</small> 造り<br>あられ 小判の あとがつく   | 짚을 풀어서 짚신 만들고<br>밤으면 돈자리 난다.        |
| (早) ヤーレ 後がつく<br>あうけ 小判の あとがつく   | 야-레 돈자리 난다.<br>밤아서 돈자리가 난다.         |
| ○ (音) うれし めでたの 赤松 <small>あかまつ</small> さまは<br>枝 <small>えだ</small> が 盛 <small>さか</small> りて 葉 <small>は</small> が しげる  | 기쁘다 즐겁다 빨간 소나무는<br>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푸르다. |
| (早) ヤーレ 葉がしげる<br>枝が 盛りて 葉がしげる   | 야-레 잎이 푸르다.<br>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푸르다.     |
| ○ (音) 枝 <small>えだ</small> が 盛 <small>さか</small> りて 葉 <small>は</small> が しげりやこそ<br>孫 <small>まご</small> 子 <small>こ</small> まいまで 繁 <small>はんしょう</small> 昌する. | 가지 무성해서 잎이 푸름은 바로<br>자손만대 번창한다.     |
| (早) ヤーレ 繁昌 <small>はんしょう</small> する<br>まごこすいまで 繁昌する  | 야-레 번창한다.<br>자손만대 번창한다.             |

伯太町 田植唄 계속①



伯太町 田植唄 계속②

- |  |                   |
|--|-------------------|
| ○ (音) そでの <sup>むすめ</sup> 娘さんが <sup>わろ</sup> 初め 笑うた | 저 아가씨가 처음웃었다      |
| <sup>わし</sup> 私も <sup>わろ</sup> どこかで 笑うてやろう.        | 나도 어디선가 웃어주겠다.    |
| (早) ヤーレ 笑うてやろう                                     | 야-레 어디선가 웃어주겠다    |
| <sup>わし</sup> 我也 <sup>わろ</sup> どこかで 笑うてやろう.        | 나도 어디선가 웃어주겠다.    |
| ○ (音) ほれた <sup>さおとめ</sup> ほれたよ 早乙女さんに ほれた          | 반했다 반했다 아가씨에게 반했다 |
| <sup>こかげ</sup> <sup>はな</sup> どて가 木陰で 話そうか.         | 어느 나무그늘에서 말할까.    |
| (早) ヤーレ 話そうか                                       | 야-레 말할까           |
| <sup>こかげ</sup> <sup>はな</sup> ใด가 木陰で 話そうか.         | 어느 나무그늘에서 말할까.    |
| ○ (音) 今日の日も <sup>また</sup> 又ほんげた くれた                | 오늘해도 저물어간다        |
| <sup>ごころ</sup> だれき <sup>ごころ</sup> どなたも 御苦勞さま.      | 누구라도 수고했소.        |
| (早) ヤーレ でくろさま                                      | 야-레 수고했소          |
| <sup>ごころ</sup> だれも <sup>ごころ</sup> どなたも 御苦勞さま.      | 누구라도 수고했소.        |
| ○ (音) なかえ <sup>く</sup> いつねち とつぱり 暮れて               | 긴자루 꾸겨 함박 저무러     |
| <sup>よし</sup> <sup>かた</sup> 主のある方 うれしかろう.          | 서방님 있는 이는 즐거웁겠다.  |
| (早) ヤーレ うれしかろう                                     | 야-레 즐거웁겠다         |
| <sup>よし</sup> <sup>かた</sup> 主のある方 うれしかろう.          | 서방님 있는 이는 즐거웁겠다.  |

伯太町 田植唄 계속②

(악보 1)

日本 石川縣  
珠洲郡

能登 田植唄

唱: 善本みつ(1910. 여, 鳳至郡 出生)  
坂下靜子(1930. 여) 等  
錄音協助: 坂下喜久次  
가사정리: 김돈식  
李素羅採譜(1994. 6. 12 錄音)

♩ = 60-75

1. エ おたうえと きは  
이 모 가 는 때 러 는

お や も こ も い ら ん な い  
모 녀 가 도 잘 리 어

さん さ と う え て で る が よ い  
삼 소 지 성 하 나 가 는 소 리 잘 들

や さん さ と う え て で る が よ い  
야 삼 소 지 성 하 나 가 는 소 리 잘 들

(118)  
あ や し た い そ や し た い そ  
아 야 리 다 이 소 야 리 다 이 소

能登 田植唄

2. (메)

まえ

エ お前さんはおらをいろいろといいたいな

く き

食はせて着せてうちにおいてごあんじ

ゆり

五月の山の百合の花

ヤ五月の山の百合の花

(받) 아 야-레 타이소 야-레 타이소

---

(메) 에- 당신은 내게 여러가지 말하고 싶겠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에두고 마음쓰게

오월의 산의 백합꽃

야- 오월의 산의 백합꽃

(받) 아 야-레 다이소 야-레 다이소

(악보 2)

鉢塚の田植え歌

ヤーレ — たうえ すんだらヨ (2) さな ぶりーやすー  
み コリャシヨ. さばのサすしくてイナ-ねて あそぼヨ —  
ポ ポー メー ソバシヨ — コリャサース ナラシヨ —  
ソコジヤイ イナ- ケ リキ スケ シニシヨー ワイドヨ —

鉢塚の田植え歌

(악보 3)

이나가와형①과 겹상사②의 (반)예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has two staves: the top staff is the vocal line and the bottom staff is the piano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has four staves: the top two are vocal lines and the bottom two are piano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vocal stave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treble clefs, key signatures, time signatures, and dynamic markings like 'f' and 'p'. There are also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강연음>' and circled numbers 1 and 2. The lyrics are: 보 보 매 소바쇼 - ., 어러얼 멀멀상사리, 꼬라사쓰나라쇼, 어러얼 멀멀상사리, 소꼬자이이나게라쓰게, 헤헤 - 헤이여무, 시니쇼 와이도요, 사아망사 - 디 - 여.

이나가와형①과 겹상사②의 (반)예

<악보 4>

日本 島根縣 能義郡  
広瀬町比田

苗取り唄

唱: 小池清水 川井義高  
椿義則 小池利夫  
 녹음원조: 小池謙次, 植木美生子  
採譜: 李素羅(93. 11. 21(2A))

♩ = 60-50 (上唄)

ヤカレこのちのナ

よめごさんはどこ

そだち (構成音)

苗取り唄

- 모찌는 소리 -

선율은 상패(象牌)와 하패(下唄)가 같음.

- (상패(上唄)) 야아레 이쪽에나 며누님은 어디서 낳지  
(하패(下唄)) 야아레 벼의야 벼이삭의 수염에서 낳지
- (상(上)) 야아레 도랑물은야 물여울은야 물레방안  
(하(下)) 야아레 누굴 긴다리나야 빙빙 돈다
- 야아레 쌀이 됐으며는야 무슨 쌀로  
야아레 신계 받칠 술빔는 쌀로
- 야아레 물이 됐으며는야 \*도다의 물로  
(\*富多라는 村名)  
야아레 도다 젊은이의 화장수로

- 야아래 들이 났으며는야 도다의 들로  
야아래 도다 젊은이의 玉들로
- 야아래 대나무가 되고파야 도다의 대로  
도다 젊은이의 사꾸하찌 대로
- 야아래 쌀이 되고파 나 도다의 쌀로  
야아래 도다 젊은이의 밥쌀로

(악보 5)

日本 島根縣

広瀬町比田

田植左下唄(本調子)

1993. 11月 양문 比田村 提供 upc  
李素羅 採譜

♩ = 60~50  
(±0.7)

1. こんにちのヤレヤ  
たのしのよめごさんの  
たすがたはヤサ  
たすがたはヤンハレ  
たすがたはヤアレ  
こがつのにさく  
百合のはな

1. (上唄) 오늘의 (안하-레야) 논임자 세대의 모내는 모습은  
(안하-사) 모내는 모습은(안하레)

(下唄) 모내는 모습은(야-아-레) 五月 들에 핀 백합꽃

2. (上唄) 오늘의 (ヤンハ-レヤ) 논임자의 집은 어디든가  
(ヤンハ-サ) 어디든가(ヤンハレ)

(下唄) 어디든가(야-아-레) 여덟기둥집에 향나무 지붕

田植左下唄(本調子)



(악보 6)

日本 島根縣 能義郡  
伯太町 安田

田 植 唄

(上)宮本信夫(1924, 男)  
(下)宮本瑛 etc  
가사정리: 김돈식  
제보: 이소라(素 93-11-18A)

$\text{♩} = 60-50$  (上)

こしれのいたさどこの  
たのなかかさし  
ががつごがつのひ  
のなかかさ ヤア  
レひのなかかさし  
ががつごがつのひ  
のなかかさ

Accompaniment:  $\text{♩} = 60-50$

田植唄

## (6) 日本語 要約

次度筆者の現地訪問収集資料とCD添へ附の「日本民謡大観」等を通して日本の苗取り唄と田植歌を参考しました。

特にサゲさんと早乙女が交代にうたう歌の中に早乙女がうたう歌辭が固定的か非固定的かを察しました。

短かいばやし言葉を固定的た歌う事が少なくないが韓國でたとえば珍島などのメク・バツ型のバツ(後斂)に該當するよりは慶尙道の田植歌の無後斂交唱形式であるはやし言葉の範疇に屬するのが多くありました。従って日本の田植歌は中國地方の田植歌を一般型にうたっているのがわかりました。

中國地方の田植歌は日本學者によって細密に分類して居りますが音楽形式上大きくは親子唄(A型)と流れ型(B型)及びオロシ(C型)と分ける事が出来ました。

慶尙道の無後斂田植歌はA型に相通するのが多く、オロシは慶尙道田植歌の中心地帯から収集される短かい型の唄に該當することが見受けられました。B型は早乙女が唄い安いA型を變化したものだと考へられるしその場合其の根をA型にあると考へればB型も慶尙道型田植歌と關係ないとはいえません。

大阪の猪名川筋型のように田植歌の長い後斂句は全羅道と忠南の田植唄であるサンサ類と關係あると思われるし特に忠南洪城郡結城方面を本場とするくりかえして歌うサンサ(Double SANGSA)のバツ(後斂)と符合する点が察せられました。

又中國地方の田植歌はサンサ類に屬する珍島の田植唄よりは慶尙道の無後斂の苗取り唄と田植歌と比較研究するのが最善の方ではないかとおもわれます。

## (6) 日本語 要約